

〈숙영낭자전〉에 나타난 죽음의 현장감과 재생의 상실감

심치열*

— <차 례> —

1. 들어가며
2. 지상에서 또다시 파기되는 천상의 별
3. 죽음의 전후, 비장의 현장감
4. 재생의 순간, 짧은 재회와 긴 상실감
5. 나오며

〈국문초록〉

〈숙영낭자전〉은 적강형 애정소설로, 당대 인기가 많았던 작품이다. 본고에서는 많은 이본 중 특히 작품 결말 부분에서 구제 즉, 再生의 과정이 확연히 드러나는 ‘수장(水葬) - 재생(再生) - 천상계(天上界)’ 계열인 필사본 〈숙영낭자전〉을 저본으로 삼았다. 이 작품은 숙영이 경험하는 억울한 죽음과 나중에 이를 확인하게 되는 선군의 슬픔, 그러는 사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두 사람의 자녀인 어린이의 역할까지 섬세하게 표현된다.

또한 선군과 숙영은 천상에서 죄를 짓고 지상에 내려와서 지상공간에서 또 다시 천명을 파기하지만 오히려 두 자녀까지 낳고 8년간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이 때 어린 두 자녀는 어머니의 죽음 현장에 머물면서 서사의 중심에 서게 되고 비장미는 최고조에 이른다. 고전소설에서 어린이가 서사의 중심축이 되어 발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어린이가 존재감을 드러내는 소설은 이 작품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어린 자녀는 선정적이기까지 한 어머니의 시신을 옆에 두고 거듭되는 슬픔을 반복하면서 비장미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재생은 예사롭지 않다. 물론 텍스트에 따라 결말 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숙영낭자전〉 작품 전체의 공통적인 현상은 아니다. 그런데 본고에

* 성신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서 선택한 필사본은 숙영이 재생한 후, 남편인 선군과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즉시 천상으로 회귀한다. 숙영이 재생되자마자 부모한테 하직인사를 하고 바로 천상으로 오른다는 것은 지상에서 지체할 시간과 이유가 없다는 냉정함도 엿보인다. 옥황상제가 부여한 천명은 숙영에게 매우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계율인데, 숙영은 천명을 두 번이나 거역한 결과 어떤 벌이 초래하는지 체험하고 절감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선군은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동적이고 천상으로의 회귀가 절박하지 않다. 선군은 남자를 잃은 슬픔이 가장 크게 작동할 뿐, 천상의 계율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상에서 태어나서 부모와 자식 관계로 혈육이 맺어졌기 때문이다. 즉 선군과 숙영은 천상의 죄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확연히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셈인데, 이는 적당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작품에서 재생은 숙영에게는 만족감을 주지만, 그 외 다른 인물, 특히 지상에서 삶을 영위할 부모 입장에서 볼 때 크나큰 상실감을 초래한다. 이러한 상실감은 마치 자식을 잃는 것과 동일하다. 자식뿐만이 아니라 손녀와 손자마저 천상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모의 처지가 긴 여운으로 남게 되는 결말구조를 갖고 있다.

주제어 천상, 두 자녀, 비장(悲壯), 현장감, 재생, 상실감

1. 들어가며

고전소설 중 애정소설 유형에는 상당히 많은 작품이 포진되어 있다. 남녀 주인공의 애정담이 서사전체의 핵심 축으로 작용하는 작품이외에도 애정이 소재로 활용되면서 서사의 흥미를 높이는 작품들도 상당히 많다. 특히 애정소설은 15세기 전기소설인 김시습의 <만복사저포기>에 등장하는 양생과 귀녀, <이생규장전>에 등장하는 이생과 최씨로부터 일찌감치 출발하였다. 물론 전기소설인 만큼 비현실적인 환상성과 낭만성이 주된 특징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후에 등장하는 남녀 간의 애정소설은 주제적 측면에서 애정이

한층 더 강화되면서, 애정서사의 다양성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애정소설로는 <주생전>, <위경천전>, <숙향전>, <운영전>, <숙영낭자전>, <춘향전>, <심생전> 등이 있다. 알다시피 이 중 <춘향전>은 가장 대표적인 애정소설로, 판소리로 불리다가 소설로도 정착하면서 독자를 만나게 된 생명력이 매우 강한 작품이다. 반면 <주생전>, <위경천전>, <운영전>, <심생전>은 남녀의 애정이 비극을 초래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렇게 다양한 작품 중에서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작품은 <숙영낭자전>¹⁾이다. 이 작품은 양반의 고장인 안동을 배경으로 도교적 색채가 짙은 환상적이면서도 비현실적 사건을 핵심 소재로 활용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래서인지 부모와 자식의 대립, 즉 효와 애정의 대립이라는 시각이 연구²⁾의 단초가 되었다. 하지만 이 작품을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천상의 선관과 선녀였던 선군과 숙영이 천상의 죄 때문에 지상에서 다시 만나 천상에서부터 정해진 연분을 어떻게 회복하는가에 초

1) 이 작품에 대한 연구는 그간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다. 분류를 해 보면 작가 및 창작 시기, 이본에 따른 결말 구조 연구, 사회적 맥락으로 본 의미, 문학적 의의 및 가치, 판소리와의 관계 연구, 공간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하게 분석되었다. 하지만 죽음 및 재생을 분석의 중심 틀로 연관시킨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특히 등장인물 중 숙영낭자의 죽음 전후로 어린 자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연구는 찾지 못했다. 본 연구의 도움이 되는 논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아래 논문들에서 기존 연구들을 충분히 소개하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지면상 생략한다.)

김일렬, 『도선적 신비 속의 사회적 현실-숙영낭자전의 경우-』, 『어문론총』 29, 경북어문학회, 1995./ 전용문, 『숙영낭자전 연구-이본간의 대비를 중심으로-』, 『논문집』 27집, 목원대학교, 1995./ 김일렬, 『비극적 결말본 <숙영낭자전>의 성격과 가치』, 『어문학』 66집, 한국어문학회, 1999./ 정인혁, 『<숙영낭자전>의 ‘몸’의 이미지』, 『한국고전연구』 28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3./ 서유석, 『고소설에 나타나는 여성적 공간과 장소의 의미 연구-숙영낭자전>의 ‘옥련동’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58, 중앙어문학회, 2014./ 서혜은, 『영남의 서사 <숙영낭자전>의 대중화 양상과 그 의미』, 『인문연구』 74,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5.

2) 김일렬, 『조선조 소설에 나타난 효와 애정의 대립-숙영낭자전>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4.

점이 맞춰져 있다. 물론 대부분의 애정소설에서도 천상의 선관과 선녀가 적당하여 주인공으로 설정된다. 하지만 주인공의 탁월성을 드러내기 위해 소재적 장치로 활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숙영낭자전>은 천상과 지상, 죄와 벌, 죽음과 재생이라는 상반된 공간과 상반된 경계가 문학적 대비를 통해 극진하면서 치밀하게 전개된다. 특히 이 작품은 판소리로도 불려 질 만큼 조선시대의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그것은 이 작품에서 돋보이는 비장미 때문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비장미가 지나치게 편중되었기 때문에 판소리에서 실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비장미는 장르 교섭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애정소설에서 비장미는 어느 정도 유효한 미적 가치로 작용한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숙영낭자전>에서 비장미는 선관과 숙영의 어린 자녀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 사실 고전소설에서 어린아이들의 역할은 거의 전무하다. ‘어린이’라는 단어는 출발할 때부터 ‘유아, 영아, 아동, 아이’와의 차별성을 의식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설득력을 갖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설화에서는 어린 아이의 등장 빈도가 많으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독립된 역할이 아니라 어른들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관계지시어인 자식, 누이, 동생 등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³⁾ 고전소설에서는 <사씨남정기>의 인아와 장주처럼 개체적인 어린아이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서사의 중심에 놓이지는 않는다. 물론 소설에서 일대기로 서술되는 주인공의 경우, 태몽과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할 때 어린아이의 모습이 묘사된다. 혹은 작품 말미에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여 다복한 삶을 영위했다는 행복한 결말을 드러낼 때 그 수단으로

3) 최기숙, 『어린이 이야기, 그 거세된 꿈』, 책세상, 2001, 17쪽. (여기서는 구전설화에 등장하는 ‘서사적 어린이’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념이나 가족, 국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희생되는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등장하는 어린아이, 혹은 어린 자녀는 상황에 대한 묘사일 뿐, 서사의 흐름을 주체적으로 주도하지 않는다. 그런데 본 작품에서는 숙영낭자가 죽기 전후에 어린 딸이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되고, 어린 자녀가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면서 사건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이는 고전소설 어느 작품에서도 볼 수 없는 매우 특이한 설정이다. 더군다나 어머니의 죽음 현장이 뒤틀리게 묘사되기 때문에 극도의 슬픔을 경험하는 것도 어린 자녀의 몫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이성이 죽음 과정에서 비장의 노골화를 초래하고, 급기야 숙영의 자살하는 현장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삶과 죽음의 언저리에서 그 현장을 목도하면서 어린이 목소리, 즉 어린 자녀의 목소리를 끊임 없이 이끌어내고 있는 것은 이 작품만의 개성이라고 볼 수 있다.

<숙영낭자전>은 작가 및 창작연대가 미상인 작품이다. 다만 경판 28장본의 간기에서 밝힌 함풍경신(咸豐庚申, 1860년)으로 볼 때 대략 18세기 후반이나 그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이본으로는 소설본인 필사본 150여종, 경판본 3종, 활자본 4종이 확인되며, 창본은 사실이 온전하게 남겨져 있는 것만 포함할 경우 4종이다.⁴⁾ 필사본의 경우 모두 국문본이며, 한문본 『숙영낭자전』인 <재생연(再生緣)>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국문본의 경우 제목이 약간씩 다른데, <수경낭자전>, <수경옥낭자전>, <숙향낭자전>, <낭자전>이라고도 하는데 모두 동일한 작품이다. 이처럼 제목이 다르게 표기된 것은 모두 필사본이다. 그러나 필사본은 이본 수가 많은 만큼 내용상의 차이가 다양하다.⁵⁾ 필사본계는 등장인물의

4) 김선현, 『『숙영낭자전』 이본 현황과 변모 양상 연구』, 『어문연구』 4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4, 126쪽.(이전의 이본에 관한 연구는 김일렬, 전용문 등이 있다)

5) 숙영낭자전의 이본은 장례의 유무에 따라 크게 ‘水葬-再生’ 계열과 ‘殯所-再生’ 계열로 나뉘고, ‘水葬-再生’ 계열은 다시 낭자의 거취 공간에 따라 天上界와 地上界, 仙界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선현, 위의 논문, 132쪽)

이름이 다른 점, 선군이 낭자를 찾아갈 때 부모에게 사유를 알린 점, 낭자의 장례가 꿩진하게 거행되는 점, 옥연동 연못 속에서 낭자가 재생해 나오는 점, 상소 사건이 없다는 점 등 목판본계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 특히 작품 결말 부분에서 차이가 더욱 심하다. 필사본 중에는 재생한 낭자가 부모에게서 분가하여 별도의 살림을 차리거나,⁶⁾ 아예 낭자의 장례로 끝나 재생의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본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선군과 숙영의 애정담을 서사적 중심축으로, 천상에서의 죄와 벌, 숙영낭자가 자결하는 죽음 직전 비장의 현장감, 재생 후에 벌어지는 남은 가족의 상실감 등으로 구분하여 천상인의 입장보다는 지상인의 시선에서 죽음과 재생의 경험을 고찰하기로 한다. 특히 천상계의 인물이 적당한 후의 행적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봉합되는지 그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때,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원성에 대한 대대 독자들의 소박한 염원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많은 이본 중 특히 작품 결말 부분에서 구제 즉, 再生의 양상이 확연히 들어나는 ‘水葬-再生-天上界’ 계열인 필사본⁷⁾을 대상으로 한다.

6) 이본의 여러 유형들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형의 일부 이본들에서 낭자는 장례 후 오래 뒤에 선경에서 재생을 하게 되고, 선군이 찾아가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해도 幽明의 별을 들어 귀가를 거부하면서 그 곳에 머물러 산다. 그래서 선군이 자기 집과 선경을 보름씩 번갈아 가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자녀를 데려오도록 해서 낭자 자신이 데리고 산다. 죽었다가 재생해 선경에 가서 자녀와 더불어 이렇게 사는 것은 시부모로부터 뺨박받던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거부하고 친정 곳에 가서 친정살이를 하는 모습과 흡사하다.(김일렬, 『도선적 신비 속의 사회적 현실-숙영낭자전의 경우-』, 『어문론총』 29호, 경북어문학회, 1995, 10쪽)

7) 이상구 주석, 『원본 숙향전. 숙영낭자전』, 문학동네, 2010, 329쪽. 김동욱 소장 48장본 <숙영낭자전>을 저본으로 삼아 여주 작업을 했으며, 김광순 소장 48장본(갑진본 약칭) <수경낭자전>과 김광순 소장 50장본(김광순본 약칭) <수경낭자전>을 중심으로 교감했음을 밝힌 이 텍스트를 대상으로 인용했으며, 이후 작품 인용시 쪽수만 표기한다.)

위의 인용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감지한 숙영낭자의 모습이다. 이때부터 숙영낭자는 매우 적극적으로 선군의 꿈에 나타나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천생연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결국 이러한 행동이 더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 이렇듯 <숙영낭자전>의 낭자와 선군은 천상에서 지상으로 귀양 온 인물들로 적강형 애정소설에 속한다. 적강소설은 ‘천상계→지상계→천상계’를 그 공간배경으로 하고, ‘과거→현재→미래’를 시간배경으로 해서 우리의 궁극적 관심사인 인간의 존재양상을 문제 삼는다.¹¹⁾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남녀 주인공의 적강 과정이 매우 다르다. 두 사람 모두 지상계로 내려오지만, 선군은 지상의 부모님한테 잉태된 후 자식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숙영낭자는 천상적 분위기인 ‘옥연동’¹²⁾이라는 지상 공간에서 귀양살이하면서 옥황상제가 엄명한 혼약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두 사람은 천상에서 희롱한 죄로, 적강하여 일정기간 떨어져 지내는 것으로 대가를 치르게 된다. 특히 낭자는 선녀의 신분을 유지한 채 지상에서 3년이라는 인고의 세월 속에 선군과 혼인할 기일만을 기다리게 된다. 결국 불안감이 커진 낭자는 선군의 꿈에 다섯 번이나 나타나서 전후사정을 밝히게 된다.

① 낭군이 첩을 모로시고 타문의 구혼을 흐시온이 천생연분으로 요지현의 가서 낭군으로 더부러 희롱한 죄로 승계계옵서 인간의 니치시미 인간의 서 인연을 금세에 결친하라 흐엿던이 웃지 타문의 구혼을 흐려 흐시는잇가 낭군은 삼연만 위흔하고 첩을 기다리옵쇼서 (244~245쪽)

11) 성현경,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영남대 출판부, 1981, 5쪽.

12) ‘옥연동’이라는 공간은 천상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공간으로, 안동과 대비되는 공간이다. 이미 이 공간에 대한 연구는 주목을 받아왔다.(김선현, 『숙영낭자전에 나타난 여성 해방 공간, 옥연동』, 『고전문학과 교육』 21집, 2011; 서유석, 『고소설에 나타나는 여성적 공간과 장소의 의미 연구-〈숙영낭자전〉의 ‘옥련동’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58, 중앙어문학회, 2015).

② 낭군이 옷지 날만한 안여즈을 위혀여 병이 저드지 김퍼는잇가 니 약을 씨웁쇼셔 호고 옥병 세슬 니여 노호며 가로디 호느는 불노초웁고 또 호느는 불스초웁고 또 호느난 만정취온이 부디부디 니 삼약을 시웁고 **삼연만** 츠무 쇼셔 호거날 씨달른이 간디웁거날 선군이 더욱 병세 중호더라 (246쪽)

③ 낭군의 병세 점점 중호고 스세 곤궁호웁기로 금동즈 혼 쌍을 가져와싸온 이 낭군입 츠시는 벽승의 안쳐두웁시면 즈연 부귀호올리다 호흔 화승을 주며 왈 니 화승을 주며 왈 **니 화승은 첩의 용모온이** 밤이면 덥고 즈웁고 느지면 병풍의 결러두웁쇼셔 호거날 씨달른이 밋서 간디웁는지라 (246~247쪽)

④ 낭군이 **중시 첩을 잊지 못호와** 저디지 삼화 막심호온이 일노 민망 답 답호와니다 바라웁건디 아즉 덕집의 중 퉁월을 잠간 방슈을 호와 울적호 심 회를 진정호웁쇼셔 (247쪽)

⑤ 낭군니 **첩을 보고저 호오면** 옥연동 가문정을 차즈오웁쇼셔 (248쪽)

위의 인용처럼 낭자는 선군의 꿈에 나타나 ‘3년’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알려준다. 낭자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절박했던 것이다. 그러나 낭자의 의도와는 달리 백선군은 꿈에서 본 낭자를 연모하게 되면서 상사병이 생기고, 그것을 지켜보는 낭자는 선군에게 특효약인 불로초, 불사초, 만병초를 주지만 상사병은 차도가 없게 된다. 또한 치산을 위해 귀한 금동자까지 건네주고, 거기에서 선군은 숙영을 대신하여 매월이라는 시비까지 곁에 두게 되지만 병은 더 깊어지고, 결국 두 사람은 3년이라는 기한을 어기고 만나게 된다.

일일여삼취라 **습연니 몇 습취란 호느니가** 낭지 만일 그져 도러가라 호시면 선군니 목습니 비조직석니라 니 목습니 황천의 외로운 혼빅니 되오면 낭즈의 신명년들 온전하올니가 복망 낭즈는 잠간 몸을 허신하웁시면 선군의 목습을 보전하올니다. 낭즈는 송빅 갖튼 정절을 잠간 구핍을 바라고 호흔 낙시의 물닌 고기를 구혀여 쥬웁셔셔 호며 스싱을 결단호니 낭즈 형세 문부

티손지승니라 빅니스지호야도 무가노히라 (252쪽)

위의 내용은 옥연동에서 숙영을 처음 만난 선군이 하는 대화이다. 낭자는 꿈에서 뿐만 아니라 만나서도 선군에게 천상의 죄와 천명인 3년을 강조하지만 이미 선군은 상사병이 깊어졌고, 사생을 결단하듯이 결연 의지를 보이므로 두 사람은 결국 운우지정을 나누게 된다. 결국 천상에서 서로 희롱한 죄로 지상으로 귀양 온 두 사람은 지상에서조차 옥황상제의 엄중한 벌을 ‘또다시’ 여기면서 3년이라는 천명마저 파기하게 된다. 이처럼 적강소설의 천명이 지상에서 파기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설정이다. 낭자는 곧바로 “남자의 욕망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한들 낭군은 어찌 이토록 염치가 없나이까? 내 몸이 이미 깨끗하지 못하니, 이제는 이곳에 머물러 공부해도 더 이상 소용없게 되었나이다. 낭군과 함께 내려가사이다.” 하고 주저하지 않고 신행을 꾸려 시가로 내려오게 된다.¹³⁾

상공 부부는 갑작스럽게 숙영낭자를 맞이하게 되고, 육례를 갖추지 못했지만 며느리로 받아들이고¹⁴⁾ 그 후 평온하게 세월이 흘러간다. 그 후 선군과 낭자는 8년 딸 춘양과 아들 동춘 남매를 낳게되고, 집안 살림도 부유해졌으며, 동별당에 처소를 정하고 부부는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이미 천상에서 서로 희롱한 죄로 한 차례, 지상에서 3년을 어긴 죄로 또 한 차례, 거듭되는 죄를 짓고도 8년간은 무탈하게 보낸다는 설정은 예상외다. 하지만 백상공은 아들에게 며느리와 무료하게 보내는 것에 제

13) 이 부분을 기존 연구에서는 선군이 갑자기 양반이 아닌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 혼례도 치르지 못하고 함께 기거하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숙영낭자 역시 근본 없는 여자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14) 이적의 낭주 시부모 양위계 현안호은이 상공 부처 공경 지극하고 낭주를 쓰시 본이 설부화용은 천호결식이요 양안의 흥도화 춘풍의 현날이는 듯허더라 상공 부처 이중이 여겨 낭주를 동별당의 처소를 정하고 위낭지약을 이루게하이 두 스릅의 정이 비홀씩 업더라. (254쪽)

등을 걸면서, 가문의 명예를 위해 과거급제를 보라고 권유한다. 처음에는 선군이 아버지의 뜻을 거부했지만, 남자의 청을 받아들여 서울로 과거시험을 보기위해 떠난다.

여기까지 보면 죄에 대한 벌이 상징적으로 예견되어 있을 뿐,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애정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혼사장애도 발생하지 않으며, 무자식의 안타까움도 없다. 선군과 숙영낭자는 마치 해피엔딩의 분위기를 자아내며 아무 문제없이 8년간 잘 살게 된다. 대부분의 전기 애정소설에서는 천상의 죄가 지상에서 신속하게 거행되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 비한다면 이 작품은 3년을 채우지 못한 예측 불허의 불안감의 여지를 남겨둔 채 매우 관대하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천상의 관대함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죽음의 전후, 비장의 현장감

이 작품은 다른 작품에 비해 죽음의 전후가 매우 짙진하게 묘사된다.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객관적 사실이나 사건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다. 운명으로서의 죽음 또는 자연 현상으로서의 죽음을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니다. 남다르고 의미 있는 죽음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고, 죽음이 끼치는 영향,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진리, 죽음을 넘어서는 새로운 삶 등을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생물학적 의미를 넘어서 사회적 의미, 종교적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죽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산 사람의 몫이다.¹⁵⁾ 특히 이 작품에서는 죽음의 과정에 대한 묘사

15) 정하영 외, 『고전 서사문학에 나타난 삶과 죽음』, 보고사, 2010, 17쪽.

가 서사진행의 비율로 보더라도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시아버지인 상공의 오해로 숙영남자가 매월에게 모함을 받는 사건이 발생한다. 숙영남자는 자결 결심 이전에 이미 누명이 벗겨지고, 시아버지인 상공이 숙영에게 사과까지 하지만 끝내 극단적인 죽음을 선택한다. 그렇다면 죽음의 동기는 무엇인가? 작품의 표면상 매월의 모함이지만, 작품 초반에 숙영남자의 불행 예감은 이미 복선으로 깔려있다.

선군과 숙영이 공간적 간극의 틈이 생기면서 지상에서 또다시 어긴 천명의 대기는 서서히 숙영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선군은 과거를 보기 위해 서울로 떠난 뒤에도 이틀 밤을 다시 집으로 돌아와 몰래 남자와 재회하게 된다. 이처럼 남자를 향한 선군의 애정은 다른 소설에서 볼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이다. <춘향전>에서 춘향의 사랑방식이 이도령보다 우위에 있었다면, 이 작품에서는 남성인 선군의 지고지순한 사랑 방식이 우위에 있다. 선군이 떠난 남자의 방에서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의심을 품기 시작한 백상공은 과갓길에 떠난 아들이 몰래 다시 집으로 돌아온 사실을 모르는 채, 외간남자의 출입으로 오해하게 된다.

백상공은 옥례를 올리기 전에 운우지정을 맺은 남자를 며느리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그 결과 손주와 손녀까지 생기고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영위한다. 다만 상공은 아들이 지나치게 남자에게 빠져있는 것을 민망하게 여기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과갓길에서 다시 돌아온 아들을 용납할 수 없었을 테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몰래 다녀간 사실을 함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숙하지 못한 며느리로 오해를 받고, 그 오해를 매월이가 더욱 공고하게 외간남자와의 간통으로 모함하면서 비극은 시작되는 것이다. 남자는 상공께 선군과는 필연적인 천명임을 강조하면서 비록 시아버지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없다고 항변한다.

결국 숙영은 외간남자와의 간통을 의심받게 되고 즉시 옥비녀로 자신

의 결백을 증명해 보인다. 옥비녀가 섬돌에 박히는 신이하고 초월적인 일이 벌어지자, 상공은 “자기 눈을 빼버리고 싶을 만큼” 후회하고,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누명은 인간의 예삿일인데, 너는 어찌 이토록 서러워하느냐? 마음을 가라앉히고 네 처소로 돌아가 쉬거라”라며 며느리에게 연속적으로 두 번에 걸쳐 진심으로 사과한다. 하지만 낭자는 이미 간통과 관련하여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 보다는 구설수에 오른 그 자체가 이미 더럽혀졌다며 자결할 마음을 굽히지 않는다.

낭자는 시아버지에게 매질을 당할 때부터 마치 <춘향전>에서 춘향이 변부사에게 곤장을 맞듯이, 비장이 점철된다. 그런데 이러한 비장은 시부모의 진정성 있는 사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슬픔은 자녀에게까지 전이되면서 확장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녀 등장과 역할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타 소설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거니와, 어린 자녀가 개입하기에는 어머니의 자결이 선정적이고 충격적이기 때문에 매우 불편한 서사임에는 틀림없다. 그러함에도 어머니의 죽음은 아이를 통해 감정이 이입되고 슬픔이 노골적으로 가시화되면서 비장의 현장감을 드러낸다.

① 춘향이 낭즈으 치마을 붓들고 울며 엇즈오디 어마임 어마임 어마임아 죽지 말고 살어보오 죽은 후의 닌들 어니흐며 동춘인들 어<니> 살꼬 아바임 니러오시거든 이 원통한 사정이나 흐와 익미흐신 원을 흐읍쇼서 동춘니난 밧서 젓 먹즈 하고 우느니다 방의 들어가 동춘이 젓시느 먹여줍쇼서 만일 어마임 죽스오면 울리 <남>미은 뉘을 의지하여 살느 흐시느이가 (272쪽)

② 춘양 동춘이 놀니여 씨니 엇지 천지 무심허리요 황경 중의 보니 낭즈 가삼의 칼을 쏘고 유허니 낭즈흐거늘 춘양이 디경질식하여 흡기 칼의 질너 죽으리라 흐고 칼을 빼려 흐이 썬지지 안니흐느지라 춘양이 동춘을 씨워 다리고 신체를 붓들고 낫출 흐티 더이고 디성통곡하여 왈 어만임아 어만임아 이 락니 어인 일고 놀과 동춘을 다려가읍쇼서 (274쪽)

③ 동성 동춘아 어만임 죽어신니 우리은 어니 살며 너의 거동 보기슬타
 하며 쏘흔 신체을 붓들고 닛출 흘들며 왈 어만임아 어만임아 놀니 불가온이
 어셔 니러노쇼 희가 도도온니 니러노쇼 동춘은 젓 먹조고 어버도 안이 듯고
 안노도 안니 듯고 어만임만 부르며 우는이다. 밥을 쥬어도 안니 먹고 불을
 쥬어도 안이 먹고 젓만 먹조는니다 하며 춘양니 동춘을 안고 우리도 어만임
 과 핫기 죽어 지호의 도라가조 하며 궁글며 통곡호니 (275쪽)

④ 춘양니 그 편지를 바다 가지고 울며 동춘을 안고 신체 방의 들가 어미
 신체을 흔들고 울며 얼골 덤퍼던 쇼미를 벅기고 편지 썬여 들고 눈출 한티
 디고 슬피 통곡 왈 어마님아 일러노쇼 아바님 편지 왔는니다 일러노쇼 아바
 임 중원급제호여 활입학쇼로 계슈호여 니러오시는니다 하며 편지로 눈출 덤
 푸며 왈 동춘니는 여일 젓 먹조고 우는이다 어마님 평시의 글을 조와스시던
 니 오날은 아바님 편지 왔스오되 웃지 반기 안이호시는익가 춘양은 글을 몰
 너 어마님 영혼전의 고치 못호는이 답답호와니다 (279쪽)

⑤ 춘양이 동춘을 등의 업고 빙쇼의 드러가 어미 신체을 흔들며 우름을
 치쳐 우지 못호고 곱슬 갖튼 눈물이 비 오듯시 흘이며 이고 답답 어만임아
 이러노오 이러노오 과거 가던 아반임 왔는이다. 하며 등으 업편 동춘은 흘임
 을 보고 디성통곡호고 춘양이 흘임을 붓들고 업더져 울며 왈 어만임 죽어난
 이다 하며 동춘이 노늘노 젓 먹조 하며 어만임 신체을 붓<들>고 우는이다
 하며 슬피 우이 (290쪽)

⑥ 춘양니 동춘으로 울며 왈 이고 답답 아바임아 니디지 혼탄호시다가 아
 바임 신명을 마쵸시면 우리 드른 엇지 살노 호시는익가 하며 춘양<이> 동
 춘을 붓들고 울다가 춘양이 동춘을 밥 쥬며 달니이며 무을 마심이며 야야
 우지마라 아반임 죽으면 너는 엇지살며 너들 웃지 살니요 우리도 함귀 죽어
 아바임을 싸라가 부모 혼을 의탁호자 하며 동춘아 동춘아 우지마라 혼 손으
 로 활임을 붓들고 쏘 혼 손으로 동춘의 몸을 안고 슬피통곡호이 초목급슈
 다 우는 듯호더라 (292쪽)

위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했듯이 7세인 어린 춘양은 어머니의 자결을

막으려 애쓰다가 결국 죽음을 목도하고, 젓먹이 동생인 동춘(3세)을 달래기도 하고,¹⁶⁾ 급기야 슬픔에 빠진 아버지를 위로하기도 하면서 슬픔이 최고조로 이르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주도하면서 비장미를 극대화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머니를 여읜 어린 자녀의 입장에서 죽음에 대한 현장감을 유지하면서 강한 최루성(催淚性)으로 눈물샘을 자극하게 한다. 더욱이 낭자의 시신은 가슴에 칼을 꽂고 있는 상태라 어린 자녀의 충격은 더욱 더 클 것이다.

선군이 칼을 잡고 늑슬 흐티 디고 낭즈야 낭즈야 선군이 니 도러와니 이러노쇼 이러노쇼 흐며 칼을 썬이 빅켜든 구멍으로 청초 시 세 마리 날라노며 흐노흔 할임의 억기 위의 안저 울되 흐면목 하면목 흐며 울고 또 흐노난 춘양의 억기 위의 안저 울되 쇼이즈 쇼이즈 흐며 울고 또 흐노흔 동춘의 억기 위의 안저 울되 유감심 유감심 흐며 울고 나라가거늘 할임니 그 시 쇼리를 들은이 희면목은 음형을 엮고 무삼 면목으로 낭군을 다시 보리요 흐는 소리요 쇼이즈<은> 춘양아 부더부더 동춘 을아지 말고 조희 잇스라 흐는 소리요 유감심은 동춘아 어린 너을 두고 죽어시미 눈을 감지 못흐리로다 흐는 소리나라 그 청초 시 세흔 낭즈의 삼흔칠빅니 낭군을 망중이별하고 가는 소리라 (291쪽)

위의 대목은 선군이 낭자의 가슴에 박힌 칼을 뺐을 때 벌어진 신이한 현상이다. 숙영이 자결할 때 사용한 칼은 선군만이 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왜냐하면 칼이 빠지는 순간 낭자의 가슴에서 청초 세 마리가 나오면서 선군, 춘양, 동춘이 낭자와 이별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이다. 즉 청초는

16) 이러한 상황을 ‘죽어버린 어머니의 나오지 않는 젓을 물고 있는 어린 동춘의 모습은 모자간의 이별이라는 슬픔의 감정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모자간의 사랑에 있어서 그 육체적 실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였다. (정인혁, 「<숙영낭자전>의 ‘몸’의 이미지」, 『한국고전연구』 28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3, 200쪽)

남자의 혼인 셈이다. 남자의 가슴에서 청조 세 마리가 나온다는 설정 자체가 남자의 죽음과정이 이미 초월적인 현상을 내포하고 있다. 옥비녀가 섬돌에 박힌 일, 남자의 시신이 움직이지 않는 일, 남자의 가슴에 박힌 칼이 빠지지 않는 일, 물리적 변화가 멈춘 시신의 상태 등이 초월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결국 남자는 자결함으로써 천상에서의 죄와 지상에서 3년 기한을 어긴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초월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적인 정서와 감정에 호소하는 임무를 맡은 인물이 바로 어린자녀인 춘양과 동춘인 것이다. 곧 작품 초반에서 3년이라는 기한을 어겼음에도 8년이라는 행복한 시간을 부여한 것도 바로 자녀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숙영의 죽음 전후과정은 어린 춘양의 역할로 현장에서 비장미가 노골적으로 강화된다. 즉 초월적인 인물과 초월적인 사건들에 비껴가는 것이 바로 어린 자녀들이다. 특히 춘양은 천상 존재인 선군과 남자, 지상 존재인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이어주는 교량적 역할을 한다. 그것은 바로 극한 슬픔으로 치닫는 감성을 자극하게 함으로써 인간 본성의 측은지심을 호소하게 만든다. 어머니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생을 달리한다는 것, 더욱이 말 할 수 있고, 자각이 가능한 어린아이의 슬픔은 눈물샘을 자극하기 위한 최루성(催淚性)의 극대화라고 볼 수 있다. 죽음에 대한 비장미는 천상인보다는 지상인에게 적합한 정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어린아이를 등장시켜 더욱 더 노골적으로 독자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현장감을 살리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피기스러울 수 있는 죽음의 형상을 어미를 잃은 어린 남매의 곡진한 슬픔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좀 더 섬세하게 묘사하려는 당대 정서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 재생의 순간, 짧은 재회와 긴 상실감

앞서 살펴본 죽음 전후의 과정은 춘양과 동춘의 역할이 중심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낭자가 구제되어 옥연동에서 재생한 이후에는 어린 아이들의 역할과 대화는 즉시 소거된다. 즉 춘양과 동춘의 역할은 어머니의 죽음을 목도한 어린 아이들의 극대화된 슬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의미이다.

장례 치르기 전 낭자의 시신은 방바닥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데, 이는 그만큼 원한이 사무쳤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선군은 비참하게 죽은 낭자의 모습을 보고, 낭자를 모함했던 매월과 돌쇠에게 처참한 복수를 한다.¹⁷⁾ 사실 고전소설에서 악인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인데, 대부분 천상의 힘을 빌어서 악을 징치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런 처리방식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당사자인 선군이 직접 처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또한 보기 드문 설정으로, 이 작품이 적강소설인 만큼 천상인에 관심이 집중될 뿐 지상인에 대한 배려, 낮은 신분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장에서는 지상에 남아있는 가족의 입장에서 그의 미를 탐색하기로 한다.

주인공이 천상에서 적강한 인물인 만큼 천상으로 회귀하는 구조는 당연한 이치이다. 특히 숙영낭자의 경우는 천상계의 선녀 신분인 채로 옥연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천상적인 요소가 소거되지는 않는다. 낭자는 자결한 뒤 선군의 꿈에 나타나 “슬프다, 낭군님아! 제 시신을 육 년 된 창포로 질끈 묶어 신산(新山)에도 묻지 말고 구산(舊山)에도 묻지 말고 옥연

17) 할임니 분허물 이기지 못하여 창두를 불너 세우고 돌쇠를 박살하여 죽이고, 할임니 찾던 칼을 빼여들고 느껴와 엇지 너 갓튼 연을 일기인들 세상의 살여두리요 하며 밭월의 비을 질너 헛치며 상공을 도라보며 왈 이런 요망헌 연의 말을 듯고 빅옥 무죄헌 사툼을 죽어스오니 니런 이달은 인니 어더 잇싸올이가 하이 상공니 묵묵부답하고 눈물만 흘여이더라. (296쪽)

동 못 가운데 넣어주소서. 그러면 훗날에 낭군과 춘양과 동춘을 다시 볼 듯 하니, 부디부디 헛되이 생각지 마시고 제 말대로 하소서.”라는 주문을 남긴 채 사라진다. 선군과 가족들은 낭자의 말대로 옥연동 못에 넣으려 하자 물이 마르면서 석관(石棺)이 보이므로 그 석관에 넣어 장사지낸다. 그런데 제를 마치자마자 경이로운 사건이 발생한다.

① 선군과 호상하던 스름이 더경질식하여 이로디 낭즈임 죽은 제 십여 일 니요 쏘흔 슈중흔벽이 되어거늘 엇지하여 사라나오난고 혼이 선군니 낭즈을 붓들고 더성통곡하여 낭즈 단슈호치를 반만 여러 하고 이로디 낭군은 사염 말고 부모 양위계 뵈옵시고 천궁으로 가스니다 하고 청스즈을 타고 집으로 도러가이 상공과 정씨 닳달라 낭즈을 붓들고 통곡하여 왈 낭즈은 어더을 갖 드 왔난야 하며 일변은 차목한 마음을 이기지 못허더라 낭즈 송공과 정씨 전의 가 절하고 사로디 첩은 익운이 천상 죄오며 막비천슈라 너무 혼치 마옵 소서 하며 왈 옥황상제임니 우리을 올라오라 하시이 천명을 거스리지 못할 거신니 올라가옵는이다. 하이 성공 부쳐 더욱 처량한 심스를 충양치 못할너 라 (중략) 선군다려 왈 우리 올노갈 시가 급하여신니 빗비 부모전의 허죽하고 올라라는이다 하이 선군이 부모지정을 잊지 못하여 시로이 슬허흔이 선군과 낭즈 부모 양위를 위로하여 나아가 복지 고왈 소즈 등은 세상 연분이 진하여삼기로 오날날 허죽 허옵는이다 하고 인하여 허죽 하며 부모 양위임 너니 평안허옵서서 하고 청스즈 혼 쌍을 모라 니여 할임은 동춘을 안고 낭즈은 춘양을 안고 무지기로 더위즈바 빅운을 감두로고 오운의 쓰여 선군으로 더불어 올라가는지라 (300~301쪽)

② 일실이 화려하여 그릴 거시 업서 세월를 보니니 빅공부부 텃년으로 세상을 버리고 싱의 부체 인혜 관네하여 선산의 안장하고 싱이 시묘허니라. 니러구러 광음이 훌훌하여 정넬은 합하여 스남일너를 싱하고 숙넬은 삼남일너를 싱하니 다 부풍모습하여 개개 옥인군지오 현녀숙완이라. 남가녀혼하여 즈손이 선선하고 가세 요부하여 만석군 닳흠을 엇고 복늬이 무흠하더니 일 일은 더연을 비설하여 즈녀 부손 등을 다리고 삼일를 즐거더니 홀연 상운이

스면을 돌너 드리오며 농의 소리 진동호는 곳의 일위 선관이 내려와 불러
왈 선군이 인간즈미 엇더호노 그더의 삼인이 상턴홀 괴약이 오늘이니 밧비
가즈 호거늘 선군 삼인이 일시의 상턴호니 향년 팔십이라 즈너 등이 공중을
브라고 벽용이통호고 선산의 허장호니 그 일이 괴이호기로 디강 호노라

위의 ①은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필사본으로, 선군과 낭자가 두 아이
를 데리고 천상으로 올라가는 장면인데, 부모입장에서 보면 아들과 손자와
손녀, 그리고 며느리를 동시에 한꺼번에 잃는 그런 대사건이자 대반전인
셈이다. 반면 ②는 경판본 28장본의 마지막 장면이다. ①에 비해 적강형
애정소설의 보편적인 결말구조를 따르고 있다. 이렇듯 <숙영낭자전>은 동
일한 작품임에도 이본에 따라 결말이 상이한 것은 드문 사례이다. 경판본의
경우 일반적인 고전소설, 특히 영웅소설, 애정소설, 가문소설 등에서 보이
는 정형화된 결말 방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필사본에서 상공
부부는 낭자와 선군이 천궁으로 올라간 뒤에 한동안 슬픔에 젖어 망연히
지내더니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가니, 슬픔도 점점 사라졌다고 묘사하고
있다. 끝내 상공 부부는 재산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모두 나누어주고 여생을
한가롭게 지내다가 백 살이 되던 해 한낱한시에 별세한다는 결말을 통해
자식을 잃은 부모의 상실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⁸⁾ 특히
춘양과 동춘은 어머니의 재생, 즉 부활된 모습에 대하여 어떠한 발언도 하
지 않는다. 즉 어린 자녀의 존재감이 갑자기 소거된다. 단지 천상에 함께
오르는 가족의 일환으로 처리될 뿐이다. 즉 두 어린 남매는 오로지 숙영의
죽음 현장에서만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8) 물론 이 작품의 경우 이본에 따라 각기 다른 결말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필사본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김일렬 (『숙영낭자전 연구』, 역락, 1999, 14쪽)의 “<숙영낭자전>과 같이 각 이본의 특징이 뚜렷하고 상호간의 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그 하나하나의 차이를 중시하면서 상호관계를 고찰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한 시각과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숙영낭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결말은 완벽한 재생이자 구제이며, 동시에 천상으로 회귀하는 순환체계를 갖추고 있다. 더욱이 선군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낳은 어린 두 자녀도 함께 천상에 오른다는 설정 자체도 특이한 현상이다. 특히 숙영낭자가 재생된 직후 부모한테 하직인사를 하고 바로 가족과 함께 천상으로 향한다는 것은 천명의 법도가 얼마나 엄격한지를 반영하고 있다. 왜냐하면 천명을 두 번이나 거역한 결과 어떤 벌이 초래하는지 체험하고 절감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선군은 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동적이면서 천상 공간이 절박하지 않다. 선군은 낭자를 잃은 슬픔이 가장 크게 작동할 뿐, 천상의 계율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다. 또 다른 이유는 선군은 지상에서 태어나서 부모와 자식관계로 혈육이 맺어졌기 때문에 천궁에 오를 때도 부모님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짙게 배어있다. 다시 말하면 태생적으로 두 사람 모두 동일하게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확연히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숙영낭자에게는 죽음의 고통을 경험한 후 재생을 통해 만족감을 주지만, 그 외 다른 인물, 특히 지상에서 삶을 영위할 부모 입장에서는 크나큰 긴 상실감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상실감은 마치 자식을 잃는 것과 동일하다. 흔히 자식을 잃을 때도 천상으로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영원한 이별을 고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초경험적인 것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과 자식의 애정을 억압하는 부모에 대하여 자식의 불효는 별로 문제 삼지 않고 부모의 억압을 문제 삼고 있다.¹⁹⁾ 더욱이 자식뿐만 아니라 손녀와 손자마저 천상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모의 처지가 깊은 상실감의 긴 여운으로 남게 되는 결말구조를 갖고 있다.

19) 김일렬, 『숙영낭자전 연구』, 역락, 1999, 57쪽.

5. 나오며

인간에게 삶과 죽음은 연장선상에 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죽음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현실과 단절된 채 그 이후의 변화는 알 수가 없다. 즉 미지의 세계인 셈이다. 문학에서는 삶과 죽음, 사랑 등이 인간의 본질이자 가치이기 때문에 모든 장르를 망라하여 매우 보편적인 주제 및 소재로 활용되어 왔다. 고전소설도 예외가 아니어서, 특히 소설의 첫 출발을 알리는 전기소설에서부터 이러한 문제는 심도있게 접근하였다.

이 중 특히 삶과 죽음은 대비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전기소설에서는 이러한 대비성에서 탈피하여 ‘재생’의 문제까지 확장시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민간신앙적 요소, 도교적 요소, 불교적 요소 등 종교적인 색채 속에서 사랑이라는 공감적인 감성이 어떻게 혼합되고, 생명력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부여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구제라는 신이한 체험인 재생은 매우 나약하고 유한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타자 의존적인 존재, 즉 무한성을 확보한 신적인 영역으로 제한된다.

적강형 애정소설은 천상의 질서에 따라 회복하는 과정을 구조적으로 보여준다. <숙영낭자전> 역시 적강형 소설답게 천상의 회귀를 실천함으로써 철저한 구제 즉 재생의 원리를 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재생을 통해 영원한 삶을 영위한다는 메시지가 당대 독서인들에게 보상심리로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애정의 깊이든, 천상의 업이든, 신분 및 지위든 상관없이 고초를 경험하는 쪽은 늘 여성이다. 이는 당대 조선시대 가부장적 이념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특히 이 작품에서 선군의 아버지인 백상공의 경우 철저하게 유교적 인물로 대변된다. 이러한 사실은 공간 배경이 안동인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이 작품은 두 주

인공이 천상의 선관과 선녀였다는 것, 옥황상제의 계율 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천명 및 천궁으로 회귀한다는 것 자체가 모두 도교적인 색채를 짙게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옥황상제의 엄격한 계율은 항상 실수를 용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

<숙영낭자전>에서만 보더라도 자결이라는 일시적인 고난으로, 그 고난이 회복되면 영원한 행복과 안녕을 기대했을 것이다. 즉 인간이 눈물 흘리고 사정하면 언제나 그렇듯 옥황상제는 그 사정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이것은 모든 종교가 통하는 측은지심의 발로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천상의 계율 때문에 고난을 겪지만, 주인공의 구제는 모두에게 만족감을 주게 된다. 가족끼리 서로 수명 장수하면서 다복한 것이 결말의 공식인 셈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경우 결말 방식은 만족감보다는 이질적인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숙영낭자의 구제는 다른 가족에 대한 배려없이 즉시 또 다른 이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죽음은 인간의 유한성을 드러내면서 가족과 영원히 이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죽음에서 다시 삶으로의 복귀는 크나큰 축복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삶으로의 복귀가 끝이 아니라 즉각적인 천상으로 회귀는 죽음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이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말 방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주인공에게는 영원한 천상 복귀를 주지만, 지상에 남게 되는 가족에게는 평생 긴 상실감으로 큰 슬픔을 품고 살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제 방식인 것이다. 앞으로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판본에 따른 결말의 다양성을 좀 더 깊이있게 포착하여 그 상징성을 파악하고, 한 작품으로써의 공통적 의미 추출도 필요한 작업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 이상구 주석, 『원본 속향전·숙영낭자전』, 문학동네, 2010, 241~331쪽.
- 황폐강 역주, 『속향전/숙영낭자전/옥단춘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3, 234~315쪽.
- 김선현, <숙영낭자전>에 나타난 여성 해방공간, 옥연동, 『고전문학과 교육』 21집, 2011, 281~308쪽.
- _____, 『숙영낭자전』 이본 현황과 변모 양상 연구, 『어문연구』 4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4, 125~155쪽.
- 김일렬, 『조선조소설의 구조와 의미』, 형설출판사, 1991, 1~333쪽.
- _____, 『도선적 신비 속의 사회적 현실 - 숙영낭자전의 경우-』, 『어문론총』 29호, 경북어문학회, 1995, 25~44쪽.
- _____, 『비극적 결말본 <숙영낭자전>의 성격과 가치』, 『어문학』 66, 한국어문학회, 1999, 151~171쪽.
- _____, 『숙영낭자전 연구』, 역락, 1999, 1~275쪽.
- 서유석, 『고소설에 나타나는 여성적 공간과 장소의 의미 연구』-<숙영낭자전>의 ‘옥련동’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58, 중앙어문학회, 2015, 177~196쪽.
- 정인혁, 『<숙영낭자전>의 ‘몸’의 이미지』, 『한국고전연구』 28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3, 183~212쪽.
- 정하영 외, 『고전 서사문학에 나타난 삶과 죽음』, 보고사, 2010, 1~356쪽.
- 최기숙, 『어린이 이야기, 그 거세된 꿈』, 책세상, 2001, 1~198쪽.

ABSTRACT

The Realism of Death and the Loss of Revival in *Sugyeongnangja-jeon*

Shim, Chi-yeol

Sugyeongnangja-jeon is a romance novel which is related to Heaven and immortal spirits, and it was very popular back in those days. This thesis is based on a manuscript of *Sugyeongnangja-jeon* which clearly explains the whole process of revival: water burial-revival-Heaven. In this story, Sugyeong's resentful death, Seongun's sadness who faced her death, and even their children who shows their existence are delicately described. Also, even though Seongun and Sugyeong come down to earth because of their sins, they break laws again, and this offers a unique story line. Seongun and Sugyeong have two children and spend 8 years happily. The children, however, stay around their mother who kills herself, and they become a main story reaching the sad climax. In classical novels, children rarely express their feelings while leading stories. That is, this novel is the only novel in which children reveal their existence. Especially, these young kids standing next to their mother's corpse, which is disturbing and shocking, show their grief repeatedly. In this process, the matter of death is naturally connected to salvation, which is revival.

In this work, however, the revival is extraordinary. Depending on texts, endings can surely vary, so this does not commonly happen in *Sugyeongnangja-jeon*. It is because after her revival, she takes her husband, Seongun, and her young children back to Heaven. As soon as she revives, she says goodbye to her parents and goes back to Heaven, and this indicates there is neither time to waste nor reason to stay. This can be interpreted that she recognizes how important the Jade Emperor's rules are and how strict they are since she has defied his rules twice and experienced his punishment. Meanwhile, Seongun is more passive than Sugyeong and not desperate for Heaven as she is. He gets agitated when he loses her, but he is not

susceptible to Heaven's rules. The other reason why is he was born on earth and became their parents' son, so when he goes to the court of Heaven, he misses his parents. That is, he takes a completely different position for a person who accepts his sins.

After all, the revival in this work satisfies Sugyeong, but it causes other characters, particularly the parents who continue to live on earth, to feel such a huge loss: and this is equivalent to losing their children. Not only their children, but also their grandchildren go back to Heaven and the sadness of the parents who face this situation lingers at the end of the story.

Key Words Heaven, two children, resolution, sense of realism, revival, sense of loss

논문투고일 : 2015. 11. 10
심사완료일 : 2015. 12. 7
게재확정일 : 2015. 12. 15